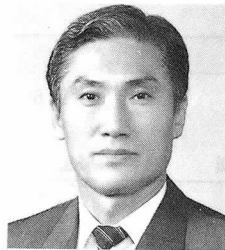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金 振 興

〈주〉에스·티·엠 전무이사

■ 약력

-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졸업
- ▲ 한국증권전산(주) 상무이사
- ▲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장(현)
- ▲ (주)에스·티·엠 전무이사(현)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제는 시내간선도로와 다를바 없이 밀어닥치는 차량들의 홍수 속에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된 느낌이다. 달리는 차량들의 면면을 보면 거의가 대형트럭등 화물차들이 대부분이다. 10여년전 일본에 갔을 때 하네다국제공항에서 동경시내를 가기 위해 달리던 차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인고속도로는 언제쯤이나 이 고속도로와 같이 화물차나 대형 콘테이너 트럭으로 가득찰까”라고 생각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수년전까지만 하여도 한산하였던 경인고속도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후진국에서 탈피 중진국의 선두주자로서 세계의 지목을 받을 정도로 괄목할 발전을 하다보니 산업사회에서의 대동맥의 역할을 하느라 이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만족하기 보다는 미래의 우리현실을 내다보며 새로 형성될 사회문화를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공업사회로부터 정보화사회로 가는 역사적 길목에 서 있다. 현재의 우리 산업사회가 “탈공업사회”, “지식사회”, “고도정보화사회” 등으로 사회가 점차 물체나 에너지 중심에서 벗어나 정보나 지식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던 덕분에 오늘이 있으며 이제는 10여년 이후에 일어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커다란 정보의 물결이 밀어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정보를 물이나 공기처럼 자유로이 접할 수 있게 되는 사회,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로 전환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진보에 있다고 본다.

컴퓨터와 통신(C&C)의 복합기술의 발전은 고도정보화사회를 더욱 촉진시켜 주는데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편 당국에서는 2000년대초에는 컴퓨터터미널이 1000만대 보급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는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어 직장에서나, 여가를 즐길 때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컴퓨터와 쉽게 접할 수 있다. 컴퓨터는 생활여건 및 경제를 개선하는데 여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미래에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될 것이다. 예를들면 행정전산망이 1990년 후반에는 구축되어 동사무소나 구청, 세무서 또는 제반 민원사무가 전국 어느 관공서에 가도 쉽게 처리될 것이고, 금융전산망계획도 1990년 중반에 완성될 것이라고 한다.

전국 어느 은행에 가도, 어느때고 쉽게 은행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백화점은 소비자의 Data Base를 구축하여 판매, 배달뿐만 아니라 여행알선, 추가정보, 자금결재 등 고객서비스기능을 확대할 것이며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카드 한장으로 금융거래는 물론 여행알선, 통신판매 등 가입자의 편의제공을 다양화시킬 것이다.

또한 집에서 병원진단도 받을 것이며 주식거래도 하고 회사일도 집에 앉아서 하게 된다. 특히 임시직업(Direct hire) 등의 업무가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Factory Automation, Office Automation 등으로 자력화되고 한편으로 Group VAN, 유통 VAN, 고객 Data Base 구축 등 전국적인 정보통신망을 형성하여 소비자와 밀착되는 판매망의 대표준을 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ISDN)도 2000년대초에는 완성된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1000만대 컴퓨터터미널의 보급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변혁을 몰고 올 것이며 고도정보화사회로의 전망에 기폭제가 될 것이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50만대로 추정되는 Personal Computer 를 전부 계산한다하더라도 1000만대 보급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않지만 현재 배부되고 있는 전화번호부 대신에 컴퓨터를 제공하면 어떠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화대수가 이미 작년엔 1000만대를 넘었으니 PC로 대체해서 보급할 수 있는 자금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컴퓨터가 보급되고 통신이 발달하면 우리 사회는 곧바로 고도정보화사회가 되어 국민복지가 증진되고 인류생활의 엄청난 편익이 제공될 것이 아닌가? 가히 정보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는 현대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의 부재를 느끼는 까닭도 바로 이 엄청난 정보망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보의 가치는 쓰는 사람에 따라 사용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보를 명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따른 사전준비와 올바른 이해가 뒤따라지 않으면 안된다.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정규교과과목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약간은 늦은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이 미래의 정보화사회 환경변화를 적응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우리 국민모두에게 소위 "Computer Mind"가 뿌리내려져 고도정보화사회를 원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도 변혁을 가져와 새로이 요구되는 정보문화 창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